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상호



몇 년 만에 작성하고 휴가를 강행했다. 8월 하순을 원초적인 태양이 작업하는 스페인에서 보내는 용기를 부렸다. 몇년 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유명 광고 카피를 빌미삼아 이제라도 다리에 힘 있을 때 길을 나서기로 했다.

국립박물관 고위과정의 늦깎이 학생인 아내의 학부형 자격으로 유럽미술 현장학습에 동참할 수 있었다. 피카소·달리·미로·벨라스케스·고야·보쉬의 그림과 가우디의 예술건축이 공부대상이었다. 알량한 미술관에서 조약한 복사본 그림으로 예술의 허기를 달랠던 그 어렵던 시절을 보상 받고 싶은 욕망이 고개를 쳐들었는지도 모른다.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마드리드 공항이 가우디의 곡선의 미학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반긴다. 여기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2시간 만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20년 전 1992년 8월 88서울올림픽 다음의 개최지인 이곳의 도심중앙에 앉았듯 자리한 문주의 언덕을 가로지르며 마라톤 금메달을 향해 내뿜었던 황영조의 거친 숨결이 귀에 닿는 듯하다.

버스로 1시간을 달려 톨미모양의 산을 케이בל카를 타고 올라 몬세라트 수도원에 다다랐다. 가우디가 이 산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카사밀라, 구엘 공원과 150년째 짓고 있는 성가족 대성당을 둘러보면 빈말은 아닌 듯했다. 우리나라 마이산을 닮은 말귀모양의 우뚝 솟은 바

나플레옹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보존한 검은 성모상을 모시고 있다. 이 영험한 성모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물려온 참배객의 줄이 끊이 없다. 튼튼한 유리관을 뚫고 봉긋하게 내민 성모 마리아의 오른손 손등은 수많은 기도의 화답처럼 반질반질했다.

대성당 앞의 성모 조각상의 눈길과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여러 각도에서 볼 때마다 눈길이 따라오고 표정이 변화한다. 천년 전의 작품인데 그들은 3D화면 구성을 이미 터득했던 말인가. 피카소미술관에서 체험한 그림 속의 참대는 보는 위치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다.

베리아반도의 스페인을 유럽이라 부르지 않으려 한다. 가톨릭이 이슬람에게 지배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스페인 남부에는 가장 로마네스크한 성당과 가장 아라베스크한 예술이 혼재해 있다. 그 중심에 석류의 붉은색이 투영된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이 그들의 고향 지중해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세력이 지중해를 건너 건넌 것은 종교전쟁보다는 사막을 건너 유럽대륙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는 염원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브롤터 해협까지의 지중해 물길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3,100m의 만년설이 뒤덮인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향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북진했음에 틀림없다. 그 산 아래 만년설이 녹아 내린 해빙강의 물길을 이용해 물의 궁전을 세운 것이다.

그들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의 대항해를 지휘하고 무적함대의 영광을 구현한 이사벨라 여왕에게 성을 내주고 다시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로 돌아가기까지 250년 동안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이슬람 예술의 결정체를 구가했다.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클래식 기타의 선율로도 지중해의 푸른 물결과 함께 꿈꾸듯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추니출판 대표이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법

위 위에 휘날리는 분리독립을 외치는 카탈루냐 문장이 선명하다.

전통적 투우의 광기가 그대로 옮겨온 축구열광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가 맞붙는 날이면 한·일전 몇 배의 긴장과 환호가 터진다고 한다. 분리독립을 오랫동안 외치며 카탈루냐 문자도 따로 배우는 바르셀로나의 자존과 분노가 함께하기에 더욱 그러리라 싶다.

이런 척박한 바위투성이의 돌산에 수도원을 건축한 그들의 신앙심이 경이로울 뿐이다. 이곳은 베네딕투스 수도원으로 유럽 사람들은 피레네 산맥의 서편 이

어렵게 찾은 달리아미술관에서는 치밀한 사실주의와 눈속임 기법에 다민체가 20세기에 현현한 것 같았다. 프라도미술관에 소장된 벨라스케스 작품 시너들도 그림 속의 화가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객체인지, 누가 주체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레이나 소피아미술관은 피카소의 게르니카 한 작품을 위한 미술관 같다. 가로 7.8m, 세로 3.5m의 초대형 거작 앞에 숨이 막힌다. 전쟁의 부조리에 울부짖는 인간의 절규가 핏빛색 하나 없이 검은색 톤만으로도 장엄하게 울림과 떨림을 준다. 유럽 사람들은 피레네 산맥의 서편 이

네팔에서 온 편지 (24)



박행순

지난 두 주간에 호주의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나는 과학자예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나기수(나는 가수다)'와 흡사하다. 호주에서는 가수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TV에 초청하는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질병분야에 스티븐, 나타샤와 나를 포함한 다섯 명이 소위 명사(과학자)로써 학생들 앞에 섰다.

첫 주에는 암전하게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을 받아 다음날까지 대답을 올리고 학생들과 매일 두세 차례 30분씩 채팅을 했다. 둘째 주에 들어서자 학생들 투표에서 득표수가 낮은 과학자를 매일 한 사람씩 퇴출시키면서 정상이 변경 들었다. 다섯 명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퇴출되는 과학자에

게는 분홍 리본이 사선으로 걸려진다. 첫째 날을 통과하자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살았구나!" 학생들의 질문에 더 좋은 답을 하기 위해 새벽까지 자판을 두드렸다.

나는 한국과 네팔의 명예(?)가 걸린 이 사이버별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프로파일에 네팔 의대 객원 교수라고 소개를 하고 학생들 사진을 올렸더니 네팔 관련 질문들이 여럿 올라왔다. 또 김치 담그는데 어떤 과학적 설명이 들어가느냐고 묻는다. 나는 김치 절이는 것은 삼투현상으로, 김치가 시어지는 것은 유산균의 발효작용이라고 대답하였다. 딱박이가 "Tteokbokki"로 위키피디아에 올랐다는 것을 호주학생의 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물론 다섯 사람 중에 나 밖에는 대답을 못했다.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하라고 격려하고 최대한 대답하려고 노력해 왔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어리석은 대답이 있기는 하지만." 엄격적인 질문은 다르다. "인육을 먹지만 어느 부위가 안전합니까?" 등에 다른 사람들은 답을 올렸지만 나는 대꾸하지

과학서바이벌 게임

않았다.

나타샤는 비만 치료와 연구를 하는데 채팅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집요적인 추궁을 받았다. 결국 "나도 동물 실험하는 것이 싫어서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교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실토했다. 질문은 그 비만 치료약에 부작용은 없느냐, 거저 일을 수 없느냐, 약값이 너무 비싼데 좀 내릴 수 없느냐 등으로 이어졌다.

내가 둘째 날도 통과하자 전반전에서 살아남는 예상 밖의 선전으로 "채면은 세웠냐"는 안도감이 들었다. 진화 관련 많은 문제가 올라왔다. 한 학생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는 '창조설'로 대답했다. 그날 밤, 스티븐이 창조설을 반박하며 "진화설을 주장하는 장문의 코멘트를 올렸다. 나는 "창조와 진화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대상으로 하며, 다윈은 '생명체의 기원'이 아니라 '종의 기원'을 설명했다. 무에서 유,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은 '창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나타샤가 내 편을 들었고, 스티븐을 지지하는

다른 과학자들 여럿이 코멘트를 달았다. 스티븐과 나는 두 주장에 대한 대포 싸움꾼이 된 셈이었다.

손톱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머리카락은 어떻게 빨리 기를 수 있는가? 유전공학, 우주공간의 중력, 신의 입자,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재는가, 지구의 내부, 지구 온난화는 인류를 수몰 시킬 것인가? 등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 묻는 어린 철학자들도 만났다.

셋째 날 오후가 되었다. 오늘날 살아남으면 10008의 삼공과 최고 과학자로 인정받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사진에 리본이 걸렸다.

프로그램 종료로 하루 앞둔 통계는 실로 놀라웠다. 889명이 올린 4386개의 질문 중 대부분이 중복 등의 이유로 삭제되고 818개의 질문이 올라왔고 채팅은 55회나 이루어졌다. 녀석들 그간 입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과학자들을 세상에 풀어 놓는 것으로만 이해했었다. 이제 보니 학생들도 똑같이 교실 바깥세상으로 내보내서 궁금증을 실컷 풀어내고 우리 과학자들의 머리를 쥐어짜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터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창무극 백범 김구 선생 공연을 보고



백맹선

지난달 29일은 경술국치를 당한 지 102년이 된 날이었다. 경술국치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지만 준비가 안 된 민족은 치욕의 역사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으며 그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한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후손들에게 전해 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한일 간 역사의 과오를 반성할 자세가 없는 걸 보면 선진국을 이미 포기한 민족처럼 보인다. 이럴 때 국가보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런 말이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요 문화는 '천년대계'라고 한다. 그런데 '보훈은 만년대계'이다. 보훈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그분들을 예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지난 5일에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창무극 공연이 있었다. 동편제 명창 송순삼씨의 총 감독 아래 전남도립극단의 예술성 높은 공연을 예향의 고향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들에게 큰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선생은 21살의 나이로 명성황후의 살해에 가담한 일 본인 육군중위를 살해하고 해주감옥에서 탈옥한 이후 한평생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몰바친 후 그토록 소원하시던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1949년 74살때 만우회의 총탄에 서거하실 때까지의 일대기를 기리는 장엄한 대 서사시를 우리 국악과 안무에 맞춰 창무극으로 연출한 전남도립극단 공연은 압권이었다. 최근 K-POP이 전 세계로 뿔어나가고 있는데 창무극처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민족예술분야도 한류처럼 세계 곳곳에 알려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올린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한 왕따 사례, 그 주변의 이야기들, 개인이 느끼기에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누명까지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의 학급 게시판에 올리는 일도 인터넷 왕따의 일종이다.

그런 일을 본 아이들은 놀림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견디기 힘든 창피한 감정을 느끼고 학교에 가지 싫어한다. 이어서 자신의 일에 대해 학교 게시판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비난 글이 올라오고, 수많은 다른 학생들이 집단으로 동조하며 댓글을 다는 식이라 그런 걸 당한 학생은 견디기 힘들어진다. 특히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까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내가 이럴 줄 몰랐

지기를 기대해 본다.

창무극 백범 김구 선생의 공연을 보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무엇이 국가에 봉사하고 애국하는 길인지를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는 그들의 공헌에 합당한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참뜻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삶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번 창무극 공연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위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우리가 가슴속 등불로 영원히 간직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한다.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장>

다"며 인터넷에 올린 일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며 친구관계마저 깨진다. 결국에 완벽한 왕따가 패배하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거나 방학을 해도 스마트폰 집단 대화를 통해 괴롭힘은 계속되고, 그룹 대화에 초대해놓고 그 학생이 말 걸면 무시하고, 옆에서 다른 학생들이 "왜 말하느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왕따를 주는 식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사이버 세상에서도 학교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2, 제3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적극 개입해서 왕따와 폭력을 막을 방도를 함께 찾아주었으면 한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시설

'동네잔치' 전략한 광주아트페어 대책없나

지난 9일 지역 유일의 국제미술시장인 '아트 광주 12'(광주아트페어)가 초라한 성격으로 막을 내렸다. 3년 전 광주비엔날레와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해 창설됐지만 관람객이 찾지 않는 '동네잔치'로 전략한 것이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6일~9일까지 행사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은 관람객은 1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의 2만여 명보다 5000여 명이 감소했다.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유명 갤러리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치 갤러리와 한국의 가나아트 등 국내외 대형 갤러리들이 대거 불참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무엇보다 주최 측인 광주시의 무관심과 마케팅 부재가 흥행 실패의 주범이다. 총사업비 6억 원 가운데 국비와 시비 3억 원 이외에 나머지를 민간기업 후원금과 기업 부스 판매 등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불황의 여파로 후원 기업을 찾지 못하면

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유명화랑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수의 화랑에게 무료로 부스를 제공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참가한 일부 화랑들이 흥행평가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위상을 떨어뜨렸다.

더욱이 광주시는 판매 부진을 이유로 대형 화랑들의 불만이 커지자 개막 이후에 예산 1억8000만 원을 편성해 작품 구입에 나서는데 등 '뒷북행진'을 자초했다. 개막 이전에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는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국내외 화랑들의 불참이 계속될 조짐이라는 점이다. 올해 마지막 참가한 화랑들도 내년엔 불참 쪽으로 돌아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미술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사의 존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명분도 수익도 없는 행사에 언제까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건가.

잡은 리프트카 사고 더이상 방치 안된다

다중이용시설인 리프트카는 안전이 생명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주시 지산유원지 리프트카는 최근 4년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거나 공포에 떠는 등 '사고 동치'로 전략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52분께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에서 리프트카가 정상 부근에서 멈춰서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날 사고는 좌석에 장착된 안전 지그 대가 레일에 걸리면서 일어났으며, 외국의 가족 3명을 포함한 탑승객 19명이 1시간 50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다.

이 리프트카는 교통시설 중 삭도(索道)로, 매년 한 차례 교통안전공단의 정기 점검을 받으며 올해도 지난 5월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0년 3월에는 운반석 1기가

미끄러지면서 추돌해 노인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관리자 3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2월과 2008년 8월에는 탑승자들이 3m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사고는 시설물이 노후돼 있는 데도 사업자 측이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항상 문제가 돼 왔다. 매일 실시해야 할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또한 건설교통부 '안전고시'에 리프트 시설의 연결장치에 대한 점검이 '전수'가 아닌, '임의추출 방식'으로 돼 있는 되고 있는 사고의 요인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리프트는 32년간이나 운행돼온 '노후 장치물'이라는 점에서 전수 점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관계 기관에서 부실 관리에 따른 사업 측의 안전불감증을 엄히 다스리고, 안전권이 풀린 관계법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차체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업그레이드 내지 시설 교체 등 근본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1982년 1월 5일 0시 야간 통행금지 해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밤 생활은 철저하게 통제됐다.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도 엄격한 통행금지가 시행됐다. 대략 밤 10시쯤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소리인 인경(人定으로 표기하고 인경으로 발음)이 28번 울리면 게임세계 한 마라라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인경은 궁궐의 보루각에서 시작돼 종로와 남대문, 동대문으로 이어졌고 도성의 4대문은 이소리와 함께 모두 닫았다. 새벽녘 통행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북소리인 '파루(龍漏)'가 33번 울리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인경이면 빠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순라군(巡邏軍)들이었다. 조선시대에 도둑과 화재를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궐과 도성 내외를 순찰하던 군인들을 일컫는다.

조선 건국 초에는 도부외(都府外)라는 병과가 있어 순라업무를 담당했다. 각 관청별로 순라 인원·순찰 시각이 각각 달랐으나 대체로 도성 내외의 순라

는 1670년(현종 11)에 각 청이 각각 8배로 나누어 장교 1명에 병졸 6~12명이 1패가 되어 근무했다. 나무 딱따기로 소리를 내며 화재와 도둑을 조심하라며 순찰하는 순라꾼들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던 인물(人定으로 표기하고 인경으로 발음)이 28번 울리면 게임세계 한 마라라도 움직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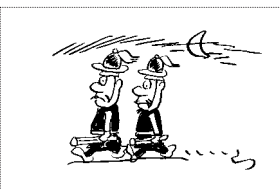
나주 여자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이후 경찰이 방범비상령을 내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3일 만에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성폭행 당해 구명 풀린 방법만이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사건 발생 시각이 경찰의 대대적인 검문 직후여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도심에서 야간 검문 순라군(巡邏軍)들이었다. 조선시대에 도둑과 화재를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궐과 도성 내외를 순찰하던 군인들을 일컫는다. 조선 건국 초에는 도부외(都府外)라는 병과가 있어 순라업무를 담당했다. 각 관청별로 순라 인원·순찰 시각이 각각 달랐으나 대체로 도성 내외의 순라

/북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순라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운암동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